

밤이면 하늘을 부드럽게 채우는 달빛과 별빛들  
그리고 가슴을 잠재우는 바다와 먼 동경을 향해 길을 내는 바람들.  
아침이면 햇살과 함께 활짝 미소 짓는 꽃들이  
내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 성전스님 -

## 101병동 화재 진압 공로, 대외기관 표창 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28일 5층 제1회의실에서 화재진압 공로를 인정받은 간호사들에게 일산소방서장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의 주인공은 병동간호 2팀 왕지혜, 안현미, 김수현 간호사로, 지난 2월 17일 병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큰 피해를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화재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01병동 병실 침대 위 전기 콘센트에서 스파크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들 간호사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단 몇 분 만에 진압될 수 있었다. 이번에 수여된 표창장은 병원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3월 5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명예) 퇴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21일 5층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명예)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인공인 방사선종양학과 윤형근 교수, 연구진흥팀 이규욱 팀장, 101병동 김민선 수간호사로 그동안 노고를 담은 공로패와 축하케이크를 받았으며, 퇴임 기념 영상을 보며 재직 시절을 돌아보는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지혜가 앞으로의 모든 일에 큰 빛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병동간호 2팀 ‘환자안전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간호 2팀은 지난 2월 22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병동간호 2팀의 환자 안전을 함께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know how 공유의 장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 안전 사례 및 개선 사항을 간호사들과 공유하고 병동간호 2팀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의 모범 사례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동간호2팀 박미순 팀장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부서 소개와 본인 소개를 직접 하며 타 병동과 서로 소통하고 행운권도 추첨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마친 간호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know how 공유의 장이라 감회가 새롭고 서로에게 행운을 주는 선물을 줄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281명

기간 ▶ 2024. 2. 1.~ 2. 29.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
|----------|-----------|
| 박덕선      | 3,000,000 |
| 김민선      | 2,000,000 |
| 혜각스님     | 1,000,000 |
| (주)코탐미디어 | 1,000,000 |
| 외 277명   | (단위 : 원)  |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